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005)
제34집 pp. 21~39

사우어(Carl O. Sauer)의 지리적 사상과 문화지리학[1)]

정 광 중*

〈목 차〉

1. 머리말
2. 사우어의 성장과정과 학문적 배경의 형성
3. 사우어의 학문적 업적과 성과
4. 사우어의 지리적 사상과 버클리 학파
5. 대표적 저작에 대한 검토 : 『농업의 기원과 전파』
6.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역사지리학과 문화지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세계의 지리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우어(Carl Ortwin Sauer, 1889~1975년, 〈그림 1〉 참조)의 지리적 사상과 업적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우어는 지리학 관련 개론서라면, 반드시 한번쯤은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지리학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독일계 미국인 학자이다. 그리고 사우어는 지역지리학의 대가로 군림하던 하트숀(Richard Hartshorne, 1899~1992년)과 더불어 미국 지리학계에서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1세대이기도 하다[2)].

한국에서는 1978년에 장보웅 교수(현재,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에 의해 사

* 제주교육대학교 부교수

1) 이 논문은 정광중, 2003, 「사우어, 미국 문화지리학의 시조」, pp.177~197 (『지리학을 빛낸 24인의 거장들』, 한울아카데미)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아카데미, p.158.

우어의 대표적 논저 중의 하나인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농업의 기원과 전파)』가 문고판으로 번역(번역본의 제목은 '농업문화의 기원'임)·출판됨으로써[3], 사우어의 연구동향과 함께 연구 방법론을 부분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어의 학문적 세계를 소개한 논고도 보인다[4].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지리학자로서의 사우어 자신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의 업적이나 활동 등을 토대로 한 비판이나 심층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자면, 우선은 한국내의 지리학 연구자들이 주로 현지조사와 관련된 연구주제나 혹은 지리학의 이론적·실증적 연구주제에만 관심을 갖는 성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의 새로운 이론과 법칙은 수용하면서도 진작 그 이론이나 법칙을 수립한 학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국내의 연구풍토와도 관련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저명한 학자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한사람의 연구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가 주로 행하던 연구 방법론을 수용하거나 원용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사우어가 남긴 중요한 업적과 지리적 사상, 그리고 그가 지도한 문하생들과 더불어 지칭되고 있는 버클리(Berkeley) 학파의 문화지리학적 특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C. O. 사우어(1889~1975)

(자료 : 中村和郎·高橋伸夫編, 1988, 『地理學への招待』, 古今書院(日本: 東京), p.131.)

3) 장보웅 역, 1981, 『농업문화의 기원』, 서문문고, 219p.

4) ① 이정만, 1993, 「사우어의 문화경관론」, pp.71~83(한국지리연구회 편,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② 이희연, 1991, 「Sauer의 경관형태학」 『지리학사』, 법문사, pp.400~406.

2. 사우어의 성장과정과 학문적 배경의 형성

사우어는 1889년 12월 24일 부친인 윌리암 엘버트 사우어(William Albert Sauer, 1844~1918)와 모친인 로제타 사우어(Rosetta Sauer, 1855~1942)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고향은 나중에 연구 대상지역으로도 이용되는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오자크 고원(Ozark Plateau)의 작은 농촌 마을로서 워렌톤(Warrenton)이라는 곳이다[5]. 이곳은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가까운 삼림지대로서, 1830년경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정주한 곳이었다.

그 당시 워렌톤군(Warrenton County)의 주민은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독일계였으며, 아울러 미주리주 오자크 고원의 주변에도 2/3의 인구가 독일계 이민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사우어의 부친인 윌리암은 1865년에 먼저 독일 남부에서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는데, 1866년에는 다시 워렌톤으로 이주한다. 그는 워렌톤의 센트럴 웨슬리언(Central Wesleyan) 대학에서 불어와 음악을 가르쳤으며, 후에는 음악학부의 학과장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윌리암은 식물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는데, 이점은 후에 사우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친인 로제타는 독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결혼과 함께 오로지 가정을 지키는 평범한 여성으로 살았다고 전해진다[6].

사우어는 어린 시절(1898~1901년) 약 4년간을 할머니가 거주하는 독일 카르브(Calw)에서 살았다. 슈바르츠발트 동편 기슭의 한 교외에 위치하는 카르브에서 사우어는 형인 헨리(Henry Albert Sauer, 1881~1936)와 함께 초등학교 학교시절(9~12세)을 보내게 되는데, 카르브에서의 4년이란 기간은 사우어에게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돌아온 사우어는 1906년에 자기 부친의 근무지였던 센트럴 웨슬리언 대학에 입학한다. 이 대학의 교육활동 중에서 중요한 것은 수업을 독일어와 영어 2개 국어로 행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교수가 독일계 이주민 1세대의 지식인층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학교육의 기본적 방침은 귀납적 추론(Induction)과 경험적 관찰(Empirical Observations)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일

5) 久武哲也, 1994, 「전게 논문」, p.64. 그리고 워렌톤이란 마을은 미주리주의 수도 세인트루이스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이다.

6) 久武哲也, 1994, 「전게 논문」, p.65.

반화나 이론적 추상화는 가급적 피하는 동시에, 개별적 현상(사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우어가 이러한 학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식물학 분야에 관심을 두던 아버지 윌리암으로부터의 감화가 큰 몫을 하였으며, 결국 학자로서의 소질을 키우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사우어는 대학 시절에 괴테(J. W. von Goethe, 1749~1832) 연구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식물 형태학과 원형을 중요시하는 괴테의 사상에 깊이 심취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사우어에게는 괴테의 「형태학(Morphology)」적 사고방식이 형태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사」(Cultural History)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925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 「경관의 형태학(The Morphology of Landscape)」은 괴테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7].

미주리주의 센트럴 웨슬리언 단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우어는 바로 노스웨스턴 대학에 진학하여 암석학을 공부하다가, 1912년에 비로소 시카고 대학으로 학교를 옮겼다. 그 당시 시카고 대학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활기가 넘치는 대학중의 하나였다. 당시 시카고 대학은 지질학자인 솔즈베리(R. D. Salisbury)가 중심이 되어,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원에 지리학 강좌를 병설하고 있었다[8].

여기서, 그는 셈플(E. Semple)과 배로(H. H. Barrows) 그리고 식물생태학 분야의 카울리스(H. C. Cowles) 등 여러 학자들 밑에서 강의를 받았지만, 수업내용에서는 상당히 실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13년에 사우어는 워렌톤 시절부터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로레나(Lorena Schowengerdt)와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1914~1915년에는 오자크 고원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박사학위 논문인 「미주리주 오자크 고원의 지리(The Geography of the Ozark Highland of Missouri)」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학위논문을 집필하면서도 메사추세츠주 살렘(Salem)에 있는 주립 노멀스쿨(Normal School)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지도관련회사(Rand McNally 사)에서 지도를 편집하는 일도 하였다[9].

사우어의 박사학위 논문은 1920년에 이르러 출판하게 되었는데, 당시 미국내의 지리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7) 久武哲也, 1994, 「전게 논문」, pp.65~66.

8) 久武哲也, 1978, 「サウァー Carl O. Sauer」, pp.90~114(藤岡謙二郎 · 服部昌之共編, 『歷史地理學の群像』, 大明堂).

9) 久武哲也, 1978, 「전게 논문」, pp.91~92.

학위논문의 연구대상 지역이자 그의 고향이었던 오자크 고원 일대는 사우어가 항상 향수에 젖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문화경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원풍경의 이미지로 작용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10].

1915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Ph. D.)를 취득하자마자, 그 이듬해부터 미시간 대학의 지리·지질학부로 부임하여 강의를 맡게 되었다. 미시간 대학에서는 강사에서 교수직으로 승진하는 7년을 지낸 후, 1923년 8월에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로 옮겼다[11]. 이 대학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지리학과 교수의 정년퇴임을 계기로, 당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총장이었던 배로(D. P. Barrows)가 초빙한 것이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로서 당당히 부임하게 된 사우어는 개인적으로도 캘리포니아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길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그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되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우어는 자연지리학의 강의도 능숙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가 작성한 자연지리학 강의안은 기후학적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작성된 것으로서, 최종 개정안은 핀치(V. C. Finch)나 트레와다(G. Trewartha)가 사용하던 텍스트의 모델 역할을 했을 정도라고 전해진다. 그 후, 강의안의 내용은 자연지리학뿐만 아니라 경제지리학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지역지리학의 한 형태로서 지역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우어는 1923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 부임한 이래 1957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지리학부 부장직 이외에는 거의 학내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지역조사와 연구 그리고 제자양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다[12].

반면에 학교 밖의 일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주한 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보우만(I. Bowman)이 위원장으로 지내던 대통령 과학자문기관인 '토지이용위원회'의 한 멤버로서 매년 2~3개월 간은 동부지역에서 보내야만 했다. 아울러 만년에는 각종 기념재단의 한 회원으로 지내면서, 지리학자들의 새로운 연구에 대한 장려와 함께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뒤따를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10) 久武哲也, 1978, 「전게 논문」, p.92.

11) 이정만, 「전게 논문」,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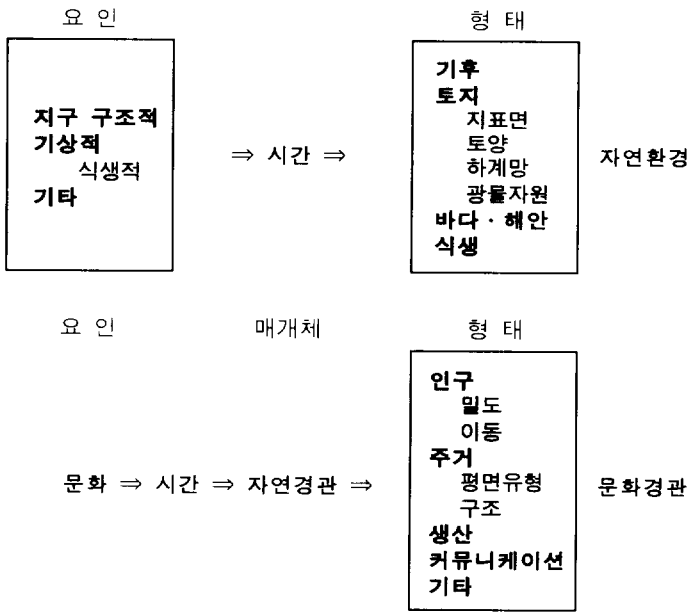
12) 竹内常行, 1971, 「カール・O・サウアー博士のこと」, pp.20~29(西川 治·河辺 宏·田辺 裕 編, 『地理學と教養』, 古今書院).

3. 사우어의 학문적 업적과 성과

버클리 분교의 교수로 부임한 사우어는 당시 34세라는 매우 젊은 나이였다. 버클리 분교 부임 2년 후인 1925년에 사우어는 이미 앞서 소개한 「경관의 형태학」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지리학에서 '문화'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듬해부터는 문화지리학과 관련되는 세미나를 개설하는데 성공하고, 이와 관련되는 연구의 일환으로, 「문화지리학에서의 최근의 발전(Recent Developments in Cultural Geography)」(1927년)과 「문화지리학(Geography, Cultural,)」(1931년)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들 논문에서는 유럽의 지리학을 아주 비판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지리학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쌓는데 주력하였다. 사우어의 문화지리학이란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경관 속에 내재된 인간의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문화사(文化史)'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사우어는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경관을 자연경관, 그리고 인간의 손길이 더해진 경관을 문화경관이라고 규정하고, 자연경관에 문화가 중요한 영력(작용원인)으로 작용한 결과 문화경관이 탄생하게 된다고 하였다(〈그림 2〉).



〈그림 2〉 사우어의 경관형성 모델(C. O. 사우어, 1925)

(자료 : ① 中川 正, 1995, 「文化地理學の步み」 p.23, ② 이정만 1993, 「사우어의 문화경관론」 p.76.)

또한 사우어는 문화지리학을 자연경관에서 문화경관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분야라고 단정짓고, 문화가 경관을 형성한다고 하는 새로운 모델은 과거 단순히 「환경-인간」이라는 두개의 항목이 대립하는 도식과는 달리 지리학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는 것이었다[13].

한편, 사우어 자신은 1931년에 작성한 「문화지리학」 논문 이외에는 문화지리학이란 용어가 붙는 논문은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쓴 「역사지리학의 서설(Foreword to Historical Geography)」(1941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지리학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서 '문화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우어가 작고한 후에는 많은 지리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문화지리학적인 연구'라 부르게 되지만, 사우어 자신은 시종일관 역사지리학을 주장하는 쪽에 서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우어의 문화지리학 세미나에서 중요한 과제가 「미국 대륙에 있어서의 초기 인류」와 「농업과 가축화의 기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집약되었던 것처럼, 사우어의 역사지리학에서 포괄하는 대상이나 시간적 스케일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역사지리학에서의 범위와 비교하면 훨씬 넓고 한층 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우어가 독자적으로 양 분야에 걸쳐서 추구했던 '문화·역사지리학적' 방법론에 대한 틀은 특히 사우어가 1930년대에 멕시코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던 시기에 갖추어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서 수 많은 야외조사의 결과로서 얻어진 나름대로의 접근방법인 셈이었다.

사우어는 멕시코를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10년 이상이나 미국의 선사인류의 이동문제와 원주민 농업의 기원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과는 멕시코에 거주하는 원주민 인구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조사를 통하여 식민지 이전 시기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의 인구 추정치를 과거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해 냄으로써, 그들이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던 고도의 농경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원주민에 관한 역사인구학적 연구에 대한 발전적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인구집계 방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우어의 멕시코에 대한 정열적인 조사연구에는 인류학, 역사학 및 고고학 관련 학자들이 많이 동참하였으며, 아울러 그의 제자들인 대학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참가함으

13) 中川 正, 1995, 「文化地理學の歩み」 pp.21~41(高橋伸夫·田林 明·小野寺 淳·中川 正編, 『文化 地理學入門』, 東洋書林).

로써 멕시코 중북부 지역은 연구의 장소이자, 학습의 장소로서 공동체적 의미를 띠기까지 하였다[14].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하여, 지리학자인 마이크셀(M. W. Mikesell)은 '멕시코 증후군(a Mexican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제창하여 사우어의 영향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 연구된 논문들은 1931년에 사우어와 역사학자인 볼톤(H. E. Bolton)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이베로 아메리카나(Ibero-Americana)』라는 잡지에 많이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 농업의 기원(American Agricultural Origins: A Consideration of Nature and Culture)」(1936년)이라는 논문 속에서는 원주민들이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농경방법이 '작물복합'(옥수수, 콩, 호박 등의 작물결합)에 있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높은 인구밀도와 식민지 시기에 도입된 새로운 경작방법에 따른 영향으로 '토양침식'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작물복합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쓰여지는 「중남미의 재배작물(Cultivated Plants of South and Central America)」(1950년)에 이어서, 그의 대작인 『농업의 기원과 전파』(1952년)로 한층 심화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우어의 문화·역사지리학적 연구는 1947년에 창설한 '열대생물지리학 연구조직(Associates in Tropical Biogeography)'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지역의 범위를 멕시코에서 카리브 해역과 중남미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도 특히 열대 사바나 지역에서 생태적 차원의 경관변화에 초점을 두게 된다.

거기에는 농업의 기원지로서의 열대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원지로서 존재하게끔 했던 변수로서의 인류행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습득하려고 하는 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한 시점을 문제시하면서, 사우어는 '불의 생태학(Fire Ecology)'이라고 칭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자기 자신도 열대 사바나 초원의 문제를 검증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1957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을 퇴직하고 난 후, 사우어는 향후에 연구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과제에 대한 연구방향을 설정해 놓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야외조사에는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스스로 장기간의 야외에서 관찰한 지식과 역사사료를 기초로, 유럽이 신대륙과 접하게 되는 초기 시점에서 동물상과 식물상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역사생물지리학적 연구에 몰두하였다.

14) 中川 正, 1995, 「전게 논문」, p.22.

따라서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굵직한 저서들을 많이 집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초기의 스페인 해로(The Early Spanish Main)』(1966년), 『북방의 안개(Northern Mists)』(1968년) 및 『16세기의 북아메리카(Sixteenth Century North America)』(1971년)가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사우어가 타계한 후에 간행된 것이지만, 『17세기의 북아메리카(Seventeenth Century North America)』 (1980년)도 그가 만년에 몰두하던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우어의 논문이나 그의 문장이 들어 있는 저작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62년도에 사우어의 제자였던 와그너(P. Wagner)와 마이크셀(M. W. Mikesell)이 편집한 『문화지리학 리딩스(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사우어를 중심으로 한 버클리 학파의 문화지리학을 집대성한 것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버클리 학파의 성향을 결집시켜 엮은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15]. 그리고 시인 칼라한(Robert [Bob] Callahan)이 편집한 『사우어 선집(選集) (Carl O. Sauer, Selected Essays 1963~1975년)』(1981년)도 있는데, 이것은 사우어의 '문화·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사상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제자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동료였던 라일리(J. B. Leighly)가 편집한 사우어 저작집 『토지와 생활(Land and Life)』 (1963년)은 사우어의 '문화·역사지리학적 연구'를 대표하는 논문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우어 선집』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우어 자신에 의해 쓰여진 만년의 저서에서는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더불어, 역사사료를 활용하여 생태계의 변화와 인간에 의한 변화과정을 해석하려는 독자적인 시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4. 사우어의 지리적 사상과 버클리 학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우어의 연구에 있어서 큰 특징은 야외에서의 조사결과를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사우어뿐만 아니라, 후에 그의 문하생을 비롯하여 사우어에게 사사를 받은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의 경우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지니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필드(field)의 선택과 함께 야외조사

15) 中川 正, 1995, 「전게 논문」, p.22.

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학풍은 '버클리 학파'라고 하는 한 시대의 학문적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의 전통과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16].

사우어는 약 20여 년에 걸쳐 멕시코를 시작으로 카리브해 및 안데스 산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연구지역을 확대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현지의 직접적인 경험을 얻기 위하여 동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우어 앞으로 제출된 박사학위의 논문수가 57편이나 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17]. 이들 논문 중 약 50%가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문화를 대상으로 집필한 것이며, 주된 내용으로서는 화전경작, 가축사육, 어업 및 전통적인 어로방법, 토착작물, 관습적 윤작방식, 민가와 전통 식생활 습관 등 대부분은 농업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환경이용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화지리학적 색채가 짙은 논문들이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전체 57편의 박사학위 논문 중 35편(1950~1967년, 즉 사우어의 나이로는 61~78세)은 사우어 자신의 연구방법과 연구체계의 기틀을 어느 정도 구축한 시기에 제출한 것들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배경은 사우어 스스로가 독특한 학풍을 이룩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인식할 수 있듯이,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우어의 독특한 연구방법과 지도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경험이나 사상을 이어받아 작성한 연구성과(물)를 지칭하여 '버클리 학파의 문화지리학'이라고 일컫게 되었다[18].

사우어와 버클리 학파의 연구자들은 독자적으로 항상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연구태도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도시적인 소비문화보다는 전통적인 생업문화를, 식민지적인 문화보다는 토착적·민속적인 문화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법칙보다는 작은 지역단위가 지니는 개성의 다양성을,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보다는 인류사라고 하는 깊은 관점에서 보는 역사의 지속성을, 개인으로서의 독창성보다는 집단으로서 지속하는 지혜를, 그리고 이론보다는 기술이라고 하는 일관된 사상과 연구방향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9]. 이러한 사상은 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

16) 久武哲也, 1989,「文化地理學學說史 -とくにドイツ・アメリカを中心として-」, pp.17~67(大島襄 二·浮田典良·佐々木高明編著『文化地理學』, 古今書院).

17) ① 久武哲也, 1994,「전게 논문」, p.72. ② 久武哲也, 1987,「アメリカ文化地理學の成立と發展」『人文地理』39-4, pp.47~75.

18) ① 久武哲也, 1994,「전게 논문」, p.72. ② 이정만, 1993,「전게 논문」, p.74.

19) 久武哲也, 1994,「전게 논문」, p.72.

〈표 1〉 사우어가 지도한 연도별 · 분야별 박사학위 논문수

연 도	명 수	분 야 별						지 역 별							
		도시	지형	기후 · 수문	문화	역사	생물 · 생태	미국	중미	카리브 해역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1923～29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930～34	5	1	2	0	0	2	0	2	3	0	0	0	0	0	0
1935～39	4	0	1	0	3	0	0	4	0	0	0	0	0	0	0
1940～44	9	0	0	2	5	1	1	4	3	1	0	0	0	1	0
1945～49	3	0	0	1	0	2	0	1	1	0	1	0	0	0	0
1950～54	12	0	2	2	5	2	1	5	4	1	1	0	1	0	0
1955～59	14	0	3	1	5	2	3	3	4	3	1	2	0	1	0
1960～67	9	0	1	1	3	0	4	2	1	1	2	3	0	0	0
합 계	57	2	9	7	21	9	9	21	16	6	5	5	1	2	1

원자료: Pfeifer, G., Die Berkeleyer Geographische Schule im Spiegel der unter Leitung und auf Anregung von C. O. Sauer hervorgegangenen Dissertationen, 1927～64. *Geographische Zeitschrift*, Jg. 53, Hft. 1, 1965, SS. pp.74～77.
Dissertations Supervised by Carl O. Sauer.(*Historical Geography Newsletter*, vol. 6-1, 1976, pp.78～80).
(자료 : 久武哲也, 1987,「アメリカ文化地理學の成立と發展」,『人文地理』, 39-4, p.51.)

1960년대부터 이론적 실증주의를 배경으로 계량지리학이 전개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사우어와 버클리 학파의 연구자들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필드에서의 직접적인 조사와 경험으로부터 얻는 지식을 토대로, 장소의 개성과 경관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기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20].

이 방법은 결국 새롭게 태동한 계량주의의 흐름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버클리 학파의 기술방법은

20) 久武哲也, 1994,「전게 논문」, p.73.

보다 현상학적인 기반 위에 놓이면서 동시에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술(記述)'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심오하면서도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1].

이것은 사우어가 학생들 앞에서 행했던 강연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사우어와 버클리 학파의 방법론의 하나인 기술은 "어떤 장소(토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여러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도록 미적인 평가를 내리는 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우어나 버클리 학파의 여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장소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존재하든 부정적으로 존재하든, 장소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5. 대표적 저작에 대한 검토 : 『농업의 기원과 전파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

이 장에서는 사우어의 대표적인 논저 중에서도 지리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농업의 기원과 전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저서는 사우어가 미국지리학회(A.G.S.)의 주최로 1952년 1월(2일간)과 2월(3일간)에 걸쳐 보우먼(I. Bowman) 박사를 기념하는 강연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학회 차원에서 소책자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22].

이 저서의 배경에는 야생상태의 벼와 밀을 인간생활에 유리한 작물로 품종을 개량하고, 나아가 야생상태의 짐승들을 가축으로 만들어 온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23]. 말하자면, 자연환경은 인간이 변화시켜온 결과를 반영한 상태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고가 깊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저서 상의 내용을 목차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크게 5개의 대주제, 즉 ① 인간 :

21) 久武哲也, 1994, 「전게 논문」, p.73.
22) 竹內常行 · 齋藤晃吉 譯, 1960, 『農業の起原』, 古今書院, pp.3~4.
23) 권정화, 2005, 「전게서」, p.165

자연생태 상의 우월자, ② 구세계에 있어서의 재배민과 가축, ③ 신세계에 있어서의 재배민, ④ 종자와 수확, ⑤ 목축민과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목차 순에 의거해서, 각 주제별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1주제에서는 자연경관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다루고 있다. 즉 인류(인간)가 오랜 세월 지구상에 생존함으로써 생태계는 큰 변화를 받게 되었으며, 특히 생태계가 선택적인 압력을 받은 탓으로 지구상에는 원래의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곳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일정한 지역을 점유하며 문화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Fire)을 사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우월자로서 군림해 왔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사우어에 의하면 불은 곧 인류가 지닌 최대의 무기인 동시에 자연 생태계, 즉 원래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강력한 요소로 등장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을 사용하였지만, 그 효과는 원래의 목적 외에도 많은 부문에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1주제에서 사우어가 개탄하고 있는 것은 애당초부터 인류가 삼림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삶을 영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삼림을 개척하고 파괴하는 일에만 열을 올려 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본 주제에서의 핵심은 인간에 의한 자연(원초적) 경관의 파괴와 소멸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전 인류가 걱정하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와도 잘 부합되고 있어서, 사우어의 미래를 향한 안목을 살필 수 있는 내용 구성이 되고 있다.

제2주제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틀에서 농경민의 유래와 함께 구세계(구대륙)에서의 농업발전과정을 소개한 후 농업의 최초 발생지, 인류의 재배식물과 식물의 개량, 인간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가축(사육동물)의 종류, 그리고 재배식물과 사육동물들의 각 지역으로의 전파라는 내용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사우어는 최후의 빙기가 후퇴하는 동안에 농업의 기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원시적인 농업의 형태가 어떠한 상황하에서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어떤 성격을 가진 인류가 농업활동을 시작했는지를 여러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원시적 농업의 발생은 식량부족이나 기근을 겪는 상황하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나 비참한 상황하에서는 실험적 단계를 거치지 못하며, 따라서 그 어떠한 발명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거나 기근에 처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작물의 생산을 위해 실험하고 토론하고 실패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우어는 농업의 발생지를 동남 아시아 지역으로 단정짓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농업의 발생에 필요한 자연적·생물적인 조건을 들고 있다. 즉 삼림지역이라는 점과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생물종이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계절풍이 부는 온난한 기후가 존재하며 또한 넓은 수역이 있어서 어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지역보다도 농업을 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재배식물과 사육동물의 전파에 있어서는 크게 태평양 상의 여러 섬 지역(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지역), 동남 아시아의 인근지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아프리카 및 지중해 지역으로의 전파로 구분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제3주제에서는 신세계(신대륙)에서의 농업의 기원지를 추출하고 지리적 조건과 자연적 환경 등을 검토한 후 열대성 식물의 재배와 동물들의 가축화, 신세계(남북아메리카) 내에서의 전파경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신세계에서 농업의 발생지는 종자번식을 전제로 한 중앙아메리카 지역과 열대농업의 기원지로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부 지역을 추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 중 특히 남미의 북서부 지역은 신세계 내에서도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육로나 해로가 모두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하천과 해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배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많은 곳이다. 또한 인간에게 유용한 수생식물과 동물들이 풍부하고 외부로부터 보호받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지내 토지의 존재 등 일정지역에 정주함으로써 많은 인구를 부양하며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신세계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과 사육동물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에는 마니오크, 고구마, 복숭아, 야자, 라카차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라마, 알파카, 모르모트가 포함된다. 신세계 지역 중 중미와 남미지역에 대한 서술은 야외조사에서 사우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재배식물과 가축의 사육과정을 검토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내용은 신세계의 일부 재배식물과 사육동물에 대한 기원설이다. 다시 말해, 구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세계에서는 당시 원주민인 인디언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재배되고 사육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이나 스페인의 정복과 같은 역사적인 큰 사건을 계기로 이식되었는지는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지

적하면서도, 닭과 같은 동물은 콜럼부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에 의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에 의해 사육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닭 사육의 기원지는 동남 아시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한 사실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의 전파관계에서는 전자에서 후자 쪽으로 여러 품목들이 전파됨으로써 그 종류가 증가하고 풍부해졌으나, 반대로 신세계에서 구세계 쪽으로의 전파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제4주제에서는 종자번식에 의한 재배식물들의 구체적인 분포지역, 재배방법과 특징, 재배상의 지역간 선후관계, 식생활에서의 이용방법, 구세계와 신세계에서 종자번식의 중심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북아메리카의 지배적인 재배식물인 옥수수, 콩, 호박에 대한 식물적 특성과 함께 원시시대의 최초 재배지역과 농경민, 인근지역으로의 전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에서 종자번식에 의한 재배식물의 중심지를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경계로 설정한 후, 이 지역에는 호박, 콩, 비름, 명아주, 해바라기, 고추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야생상태의 것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구세계에서는 종자로 번식하는 재배법이 크게 세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그곳은 중국 북부지역, 인도 서부지역 및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이들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었던 식물의 원종과 그것들의 전파경로 등을 추적하는 형태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주제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가사동물(家飼動物)과 목축에 이용되는 군집동물의 사육기원이 영양번식과 종자번식의 농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군집동물의 사육과정은 일정지역에 정주하며 종자번식의 농법을 구사하는 농경민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목축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군집동물로서 소, 양 및 산양을 예로 들면서 이들의 가축화의 중심지는 서남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사우어는 군집동물들의 가축화는 공통적으로 젖짜기(착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군집동물들을 가축화하기 위해 젖짜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처음부터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젖짜기가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가축화된 군집동물들은 애당초 생명의 기원과 관계되는 종교적 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한 예로서 지중해의 동부 어느 지역에는 대지의 여신에 대한 숭배사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여신은 풍작과 다산을 가져오는 신으로 믿기 때문에 정기적인 의식을 치르는 데는 일정한 수의 동물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배경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농업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내용을 5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 혹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곳도 발견되지만, 사우어의 학문적 사상과 현상에 대한 독특한 기술방법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주 좋은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920년대 미국 문화지리학의 성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우어는 다양한 업적과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20세기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학자로서 오늘날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사우어는 독일태생인 부친의 영향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지리학의 성과를 곧바로 흡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화 경관론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사우어는 독일의 괴테(J. W. von Goethe), 라첼(F. Ratzel), 한(E. Hann) 및 슐뤼터(O. Schluer) 등의 학문적 사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연구영역에서 매우 긴요하게 활용하였다.

사우어의 학문적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문화 경관론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시발점은 1925년에 발표한 「경관의 형태학」이라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당시 미국 내에는 새롭고 신선한 학문적 사상이 싹트게 되었고, 그 시점까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던 독일의 경관학적 사상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우어의 문화 경관론은 괴테가 중요시했던 형태학의 사고방식을 깊숙이 받아들인 결과라 해석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사우어 자신도 그 만큼 괴테의 형태학적 사고를 추구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그것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사우어의 학문적 접근방법은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역사·문화지리학적 연구법이라 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야외조사, 역사사료·고문서 등의 활용, 고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의 작성과 활용 그리고 자연지리학 지식의 활용이라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사우어는 지역연구의 대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야외조사에 대한 집념은 대단하였으며, 야외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항상 연구결과에 반영시킬 정도로 집요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우어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멕시코, 카리브해 연안지역 및 남미 등 연구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문화 경관론에 대한 틀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우어는 야외에 나갔을 때도 인접분야의 학자들과 토론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지도를 아주 중요시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우어를 핵심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를 통해 인연을 같이하거나 혹은 사우어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사사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버클리 학파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학파의 연구자들은 사우어가 타계한 이후에도 그가 지향했던 연구방향과 연구방법을 고수하면서 하나의 학문적인 맥을 형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지리학계가 경관론적 지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사우어에 의해 주창된 문화 경관론이 미국의 지리학계에 학문적인 사상으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우어의 사상은 미국 내는 물론 전세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언해 두고자 한다. 최근에 미국의 지리학계에서는 사우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사우어학(Sauerology)'[24]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25]. 이러한 배경은 그만큼 사우어가 세계의 지리학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이론이나 원리 또는 사상과 법칙 등을 받아들일 때는 창시(창안)자의 성장배경과 인간성, 학문적 틀과 관련되는 배경 그리고 주된 연구 방법론 등이 중요한 일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지리학계가 진정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탄생한 이론이나 원리, 사상과 법칙의 수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립한 학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비판과 고증이 뒤따르는 연구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Marvin W. Mikesell, 1987, Sauer and "Sauerology" : A Student's Perspective, pp.144~150(in M. S. Kenzer (ed.), *Carl O. Sauer : A Tribute*, Corvallis, Oregon,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25) 久武哲也, 1994, 「전게 논문」, p.63.

《본고에서 소개한 사우어의 논문과 저서들》

1) C. O. Sauer, 1952,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 Bowman Memorial Lectures, Series 2,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2) C. O. Sauer,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Publications in Ge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Vol. 2, No. 2., pp.19~53.

3) C. O. Sauer, 1920, 「The Geography of the Ozark Highland of Missouri」, 『The Geographic Society of Chicago, Bulletin』 No.7. Reprinted in 1974 by Green-wood Press and AMS Press.

4) C. O. Sauer, 1927, 「Recent Developments in Cultural Geography」, in E. C. Hayes(ed.),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Lippincott, pp.154~212.

5) C. O. Sauer, 1931,「Geography, Cultural Foreword to Historical Geography」,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6, pp.621~624.

6) C. O. Sauer, 1936, 「American Agricultural Origins: A Consideration of Nature and Culture」, in 『Essays in Anthropology Presented to A. L. kroeber in Celebration of His Sixteenth Birthday, June 11, 193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278~197.

7) C. O. Sauer, 1950, 「Cultivated Plants of South and Central America」, in 『Handbook of South American Indians』, Smithsonian Institution, Bureau of American Ethnology, Bulletin 143, Vol. 6, pp.487~543.

8) C. O. Sauer, 1966, 『The Early Spanish Mai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9) C. O. Sauer, 1968,『Northern Mist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0) C. O. Sauer, 1971, 『Sixteenth Century North America : The Land and the People as Seen by the Europea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1) C. O. Sauer, 1980, 『Seventeenth Century North America : Spanish and French Accounts』, Berkeley, Turtle Islands Foundation.

12) P. Wagner and M. W. Mikesell (eds), 1962,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3) R.[Bob] Callahan, 1981, 『Carl O. Sauer, Selected Essays 1963~1975년)』 Berkeley, Turtle Islands Foundation.

14) J. B. Leighly(ed.), 1963, 『Land and Life,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Carl Ortwin Sau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